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2.60원 상승한 1,099.90원에 마감

12일 환율은 전일대비 2.60원 상승한 1,099.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70원 상승한 1,098.00원에 개장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에 소폭 갭업 출발한 환율은 오전 중 1,100원대 부근에서는 네고 우위, 1,097원대에서는 결제가 우위를 보이며 상·하단이 제한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코스피가 하락하자 환율은 상승폭을 확대하며 1,103.00원을 터치하였다. 이후 코스피가 낙폭을 축소할 영향 및 네고 물량 유입에 상승폭을 줄이며 전일대비 2.60원 상승한 1,099.9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 폭은 6.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55.06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1098.00	고가 1103.00	저가 1097.00	종가 1099.90	평균환율 1099.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1051.28	고가 1057.16	저가 1051.28	종가 1054.15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1333.33	고가 1342.76	저가 1332.89	종가 1342.48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0.2	3M -0.78	6M -1.68	12M -3.02
		결제환율(수입) 0.1	0.33	0.63	1.3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달러 강세 완화에 1,09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099.90원) 대비 5.35원 하락한 1,094.5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며 달러화 강세 완화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입찰 호조에 미 금리가 6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달러 인덱스는 다시 90선까지 레벨을 낮추었다. 이에 따른 달러 약세에 환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역대 수급에서 조선 수주 등으로 인한 네고물량이 우위를 보이는 점 또한 하락압력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초 개인들의 적극적인 해외 주식 순매수는 환율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91.20 ~ 1098.4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189.3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35원 ↓
	■ 美 다우지수 : 31068.69, +60p(+0.1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2.0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4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